

의료기술과 지식이 빠르게 진보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검증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빠르게 보급되는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체계적·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2007년 4월부터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의료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호의 '정책과 쟁점'의 주제는 '신의료기술의 현황과 과제'입니다. 그간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평가 절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왔습니다. 2008년 12월 23일(화)에는 이러한 논쟁을 공론화하고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좌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호는 이상무 심평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 본부장, 김영 사이넥스 대표, 이원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정천기 서울대학교 신경외과 교수, 이선희 신의료기술평가사업 팀장의 토론 내용을 요약합니다. 급증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건수,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중의 비용인정, 신의료기술평가와 식약청 허가의 역할 정립, 국내 개발기술 지원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각계의 시각과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있어 향후의 논의에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 기고'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위원께서 '미국 메디케어 가치기반 지불(Value-based Purchasing) 프로그램 실시계획'을 소개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HIRA연구'에서는 최근 급여 확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화상진료와 관련하여 주요 외국의 화상진료 급여체계, 급여기준, 관리체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실었습니다. 합리적인 화상급여 체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해외동향'에서는 '정책과 쟁점'의 주제와 연계하여 '호주의 의료기술 평가제도 현황'을 소개합니다. 의료기술평가기구의 발전과정과 의료기술평가 과정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CMS, AHRQ 초청 국제심포지엄'의 발표 내용도 실고 있습니다.

'진료경향분석'에서는 2003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의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하여 만성신부전 질환의 발생현황과 만성신부전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분석하였습니다. 만성신부전질환자의 내원일수는 2003년 대비 2008년 68%, 요양급여비용총액은 81%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대책이 요구됩니다.

2009년에도 격월지로 새롭게 단장한 'HIRA 정책동향'이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장

정 형 선